

스태이지149-어린이명작무대2 〈강아지똥〉



- 공연일시 : 2017년 11월 1일(수) ~ 3일(금)
수, 목 오전 10시30분 / 금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료 : 전석 2만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5세 이상 관람가

한국 최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잘 것 없는 강아지똥이 어느 날 거름이 되어 별빛같이 아름다운 민들레꽃으로 다시 피어나기까지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림이 담겨있는 <강아지똥 / 글 : 권정생, 그림 : 정승각>은 한국 동화책 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는 그림책으로, '극단 모시는 사람들'에서 최초로 무대로 옮긴 well-made 어린이·가족 연극입니다.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극으로 그림책 속에서 막 튀어 나온듯한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며, 동화가 주는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마임, 아크로바틱, 마술, 춤 등의 난버벌 퍼포먼스 기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따뜻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 관객은 물론 어른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재미를 더한 공연이 될 것 입니다.

커피콘서트 9 이승희X이향하 판소리 '여보세요'



- 공연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후 2시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료 : 전석1만5천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이자람 예술감독의 '판소리만들기 자'가 만든 창작 판소리!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가꾸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입니다. '육아'와 '가사'라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커피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무대로 공연 마실을 나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전석 1만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입니다.

김애란의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을 판소리 양식에 담아낸 <여보세요>는 지금을 사는 우리네 삶과 생각을 진솔하게 보듬은 단편입니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고, 취업 때문에 지방에 계신 엄마와 전화로 싸우는 초보 자취생 승하와 같은 하숙집에 살지만 얼굴은 본 적 없는 4명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가장 현실과 맞아떨어있는 판소리'라는 평담게 소소하게 풀어내는 일상의 묘사는 웃음과 따스한 공감을 자아냅니다. 20~30대 여성들이 겪는 두려움과 미지의 시간들, 그리고 완전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등을 보며 우리가 안고 있는 외로움과 막연한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2017 클래식시리즈 5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2017. 11. 17(FRI) 8PM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032)420-2000(내선부호) | 예약: 1588-2341 | 인터티켓 1544-1555

- 공연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최근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오케스트라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 첫 내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의 '클래식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가 오는 11월 18일 대공연장 무대에 오릅니다. <카메라타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바이에른 캄머 필하모니>, <트리오 반더러>에 이어 공연되는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는 폴란드 크라코프시의 챔버 관현악단으로 시작하여 정밀함과 유연성으로 높은 평판을 가진 오케스트라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의 첫 내한 공연으로 국내에서 인천이 제일 처음으로 연주됩니다.

이번에 연주될 베토벤 교향곡 7번은 프란츠 리스트가 "리듬의 신격화"라 표현할 정도로 리듬의 역동성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신포니에타 크라코비아와 지휘자 유렉 뒤발이 이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2번은 독특하고 명료한 색깔의 피아노 음색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늦가을 동유럽 폴란드의 짙은 감성을 느끼게 할 이번 내한공연은 인천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인천시립무용단 제81회 정기공연 <2017 만찬 - 진, 오귀>



- 공연일정 : 2017년 11월 10일(금) ~ 11일(토) 금 오후 8시 / 토 오후 5시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한국판 무속 판타지 <2017 만찬 - 진, 오귀>

삶과 죽음 사이,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신이 있다.

인천시립무용단(예술감독 윤성주)의 제81회 정기공연 <2017 만찬-진, 오귀>는 한국 전통의 생사관을 이승과 저승의 이원적 세계로 배치하고 두 세계가 만나는 어딘가에서 펼쳐지는 인간과 신의 이야기를 무용극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안무가 윤성주의 작품세계를 관통해온 제의식,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등 그간 천착해온 주제를 집대성한 <2017 만찬-진, 오귀>는 춤을 매개로 신을 향해 올리는 큰 굿이자 재(齋)로, 인간의 생사 역시 순환의 큰 고리 속 일부일 뿐이니 두려움을 떨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 굿 의식의 현대적인 변용을 통해 드러난 상징성과 기호성, 두 세계를 넘나드는 호쾌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조로 <2017 만찬-진, 오귀>는 명실상부 한국 판 판타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68회 정기연주회 〈엘가&차이코프스키〉



- 공연일정 :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랑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 예 매 :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엔티켓 1588-2341
-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단원들이 뽑은 최고의 협연자와 인천시향이 가장 사랑한 교향곡

인천시립교향악단을 넘어 새로운 인천시립교향악단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운드 아이피오 시즌의 마지막 연주는 단원들이 뽑은 최고의 협연자와 인천시향에게 가장 사랑 받은 교향곡으로 꾸며집니다.

음악회는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 제3막의 시작을 알리는 찬연한 춤곡 폴로네이즈로 문을 열고, 뒤이어 베를린 필하모닉 첼로 수석 마르틴 뢰어가 엘가의 첼로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엘가의 첼로협주곡은 그의 유일한 첼로 협주곡이자 비탄의 잠긴 첼로의 노래로 청중들을 감정의 클라이막스로 몰 갈 낭만주의 최고의 협주곡 중 하나입니다. 2부는 인천시립교향악단에게 가장 사랑받은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과 함께 인천시립교향악단 50년 역사에 가장 많은 연주로 무대에 오른 곡입니다.(정기연주회 기준 12회)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이번 연주를 통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교향곡으로 새로운 인천시립교향악단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가장 많이 연주된 교향곡의 기록을 갱신하여 연주의 의미를 더 할 예정입니다.